

도시재생, 지방이 더 절실하다

- 충청권지역혁신협의회, 충청권 도시재생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충청권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과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12월 7일 오후 1시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열렸다.

대전·충남·충북지역혁신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충청권의 도시재생” 국제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도시재생 전문가들을 비롯한 관계자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 안건혁 교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1주제 “도시재생의 세계적 추세”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토마스 베리(Tomas Barrie) 교수의 ‘미국 중소도시의 재생 전략과 사례’ 및 일본 토호쿠대학 마사테루 히노(Masateru Hino) 교수의 ‘일본지방도시의 최근 사례로 본 도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 ▲제2주제 “충청권의 도시재생” -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박사 등의 ‘대전·충남의 도시재생 방향과 전략’ 및 충북개발연구원 원광희 박사 등의 ‘충북의 도시재생 방향과 전략’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실상 국내 도시재생사업은 주택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

비사업이란 사업으로 정의하고,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안건혁 교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추진 결과는 다른 지방 도시에서의 인구와 산업의 유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로 이어져 자생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별 유행처럼 변진 신도시 개발사업 등이 지역의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근 지역과의 불균형과 공동화를 부추기는 등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 결국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복합적 측면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이 지방도시에 적극 투입되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토호쿠대학 마사테루 히노(Masateru Hino) 교수 역시 “일본의 지방도시는 더 이상 외부 자본의 유치와 경제성장 논리에 의존하는 지역 개발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간 특성을 고려한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유연하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방도시의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계획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토론회” 참가

- 행정자치부, 지역혁신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주최 -



11월 29일(목요일)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의 기조연설과 행정자치부 동영상 상영으로 식전행사가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토론회와 3세션으로 나뉘어 학술행사가 개최되었다. 종합토론에는 “지역혁신협의회 성과와 전략적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최계호 경남 창원군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좌장 아래 이기원 강원 인제군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발표로 현재까지의 지역혁신협의회 성과 및 앞으로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약 4시간에 걸쳐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지방분권·균형발전 평가”, “해외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사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 모색” 등을 주제로 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아래 국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지역혁신협의회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며, 앞으로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주었다.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개최

-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충남기초지역혁신협의회 공동 주최 -



11월 22일(목)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충남지역혁신협의회를 비롯한 충남의 13개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웅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강신정 충남기초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용문 국장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해”라는 주제 아래 특강을 시작으로, 최계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장의 “지역혁신리더의 역할”, 김용승 충북 증평군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지역 속으로 주민 속으로”라는 주제로 증평군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협의회 위원들의 역할과 협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충남지역혁신협의회를 비롯하여 충남지역의 13개 기초지역혁신협의회가 약 4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어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각 협의회의 애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앞으로 협의회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